

# 전북소방, 도민 안전 보장 최우선

### 5년간 인력충원해 소방수요 적극 대응·소방안전서비스 강화... 도민 안전 품격 높여

전북도소방본부가 다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자 최근 5년 동안 948명의 현직부족인력을 충원·회귀적인 변화를 통해 도민이 누려야 할 안전의 품격을 한층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노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소방인력 충원, 특수재난 대응 장비의 선진화, 소방사각시대 해소를 위한 군 단위에 소방서 신설 등 조직력 보강을 위한 인프리를 구축했다.

또한, 119구조·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정책 홍보 등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현장부족인력 충원과 청사·장비 등에 대한 소방력 변화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948명을 충원했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126명을 충원하며, 소방공무원은 3,456명이 된다.

이로써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지난 2016년 939명에서 2021년 537명으로 37.2% 이상 개선됐다.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면적 또한, 2017년 3.90㎡에서 2021년 2.42㎡로 감소했다.

소방청사의 경우, 소방서는 2017년 10개소에서 13개소로, 119안전센터수는 50개소에서 54개소로 증가했다.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인 임실과 무주에 2023년 개청을 목표로 건축 중이다.

아울러, 촘촘한 소방인프라 확대를 위해 소방수요 증가지역인 전주 조촌동 긴계 갑산동 원주 구이에 119안전센터 신설을 계획중이다.

소방차량은 소방트론 도입, 소방차 29대(신규 16대, 노후교체 23대), 구급차 14대(신규 4대, 노후교체 10대), 굴절차 1대를 포함한 도내 지역별 소방수요에 맞는 소방차를 보급 및 교체했다.

더불어, 도민 및 구급대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을 31개소 운영하고 있다.

▲도민 가까이, 더 나은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은 도민 소방안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나타났다.

우선, 군 지역 소방서 신설로 화재 사망자가 대폭 감소 결과로 이어졌다. 화재현장 사망자 수가 2018년 17명에서 2021년 1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신고접수부터 현장도착까지 7분 도차량을 높이교차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23개소 운영,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2개소 설치, 소방차 진입관련지역 골목 11상소화장치 107개소 확대 설치 등 소방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또한 소방력 보강계획 등에 따라 소방관서 신설, 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구급차 수는 103대로 3인 구급대위 탑승률은 100%로 대폭 증가했다.

구급대의 변 지역 배치 및 전문응급 처치가 가능한 3인 구급대 운영은 중증외상환자, 심장질환자의 생명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구급대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2021년 소방청 평가에서 119

구급서비스 품질관리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119지역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대 인력 보강을 통해 2019년에는 2인 지역대 제로화를 달성했다.

21년 이후에는 당당 3~5명을 배치해 편보차 및 구급차가 동시 출동체계를 구축했다.

도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민원 출동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조대원의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구조대 팀당 5~6명을 배치했다.

특히, 번포구조대 운용 및 드론 활용 등을 통해 구조활동의 내실을 다졌다.

아울러, 전북소방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화재·구조·구급 등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전력을 다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전북소방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존재 가치는 바로 180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자이다"면서 "전북소방과 도민이 한바탕으로 힘을 지혜를 모으고, 도민들의 소망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도-도교육청-시군, 평생교육진흥사업 본격 추진

### 전북도 평생교육협의회, '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의결... 4대 추진전략·312개 사업 추진

전북도가 지난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참석 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전북도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해 2022년 전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각 시도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계획이다.

올해 전북도 평생교육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도 교육청, 14개 시·군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담고 있다.

아울러,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도는 '공동체와 개인이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전북'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있는 평생학습사업 추진, 일상생활 중심의

평생학습 실천, 자아실현과 지역발전 위한 실천역량 강화, 비대면 학습환경 적응력 제고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이에, 올해 도는 도교육청·시군과 함께, 312개(431억) 평생교육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4개 추진전략에 따른 핵심과제를 수행한다.

우선, 평생학습관 등 거점 교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지역 지역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 교육과 어르신 한글 및 학력인정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등 거주지 근접 시설을 활용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성, 노인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학습동아리 등 지역맞춤형 학습

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 시민대학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전문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과 성과공유를 통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현장 관계자의 비대면 학습역량 제고와 지속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사 이버교육,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등 실질적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협의회 부의장인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생학습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복 장학금 임대주택자녀 45명에게 전달

### 전주 평화동·익산 송학동 모현동 학생에 300만원 기탁



전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학권)은 지난달 30일 전북개발공사에서 행복장학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특별 지정 기탁 장학금을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 주민 자녀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전북개발공사의 뜻을 존중해 저소득층 임대주택 단지가 있는 전주 평화1동, 익산 송학동, 익산 모현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중·고생 30명과 대학생 15명을 선발해 1인당 중·고생은 50만 원, 대학생에게는 100만 원

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증서는 오미크론 감염 위기상황을 감안해 장학금 선발에 협조해 준 전주평화1동, 익산송학동, 익

산모현동 주민센터장에게 일괄 전달했고,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유호상 기자

## 도, 축산농가 사료 구매 자금 246억원 지원

### 연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저렴하게 구매 가능 최근 집단폐사로 어려움 겪는 양농가 우선 배정

전북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246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지원대상 농가는 집단폐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양농가에 우선 배정한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대규모 농가 기준 미만 농가(소 150마리, 돼지 3천두, 양계 90천수, 오리 15천수 미만),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으로 신규 사료 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는 6억 원, 기타 축종은 9천만 원이다.

AI 피해농가는 농가당 지원도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해 9억 원 한도에서 마리당 지원 단계에 사육 마리수를 곱해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육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 2천 원, 오리 1만 8천 원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사육두수, 대출잔액, 피해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허철호 도 친환경축산팀장은 "사료 가격 상승 원인으로 러·우 전쟁 등 여러요인이 있지만, 대체원료 발굴 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 1면에 이어... 오늘부터 영업시간 1시간 더

다만,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일일 1만 명 이상 발생하는 만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시·군과 협력해 화로당 운영회수 증회 특별연장근로제도 허용 추가운영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1인 화장 능력을 54회에서 86회로 끌어올려 유족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중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 병원 등 도내 10개 병원과 응급 상황 대응 협의회를 구성하고, 확진자 전용 응급실(12병상)도 확보해 응급환자 발생시 이송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수환자(난민·소아·부석환자)가 확진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난민 소아 및 부석환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석환자를 위해 외래투석센터 33개소 456병상을 확충했다.

이외에도 노숙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코로나 19 취약 대상에 대해 매우 점검을 계속해 나가

고 있으며, 특히 요양병원·시설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의료지원 및 치료제 처방 강화, 독남공예 해소 백신 4차 접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정부가 오는 11월 이후 선별진료소에서 자가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검사인력도 증증환자 관리에 투입해 환자 관리 역량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특별사법경찰관과 생화학안전지킴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축제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방역 점검 실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스필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과 사망자 수가 증가가 열려 제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확진자 발생 수보다 위중증 환자의 철저한 관리로 사망률을 감소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체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며 "도민들에게서도 마스크 고집과도 생각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조금만 더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봄철 낚시어선

### 사고예방 위한 지도점검 강화

전북도가 봄철 낚시활동,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낚시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3일까지 봄철 낚시어선 사고예방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과 함께 신고어선 264척 중 50척(군산시40, 부안군10)을 표본으로 선정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운행부주의와 장비불량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기, 구명조끼 및 구명뗏목(13인 이상 승선 선박에 한함) 등 구명설비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어선 안전점검과 함께, 고등부 주관 산업체에 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선내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을 중심으로, 발견될 위험요소, 갑판위 정리 등 넘어짐 예방조치, 조업설비 가압 위험표시, 동력차단장치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재희 도수산정책과장은 "봄철 낚시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스스로 출항 전 안전점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를 철저히 경계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후백제 왕도 복원 추진... 전주를 국제전통도시로"

###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일 '후백제 왕도 복원사업'을 추진해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바로 설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 후보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는 무려 40년 후백제의 왕도였다. 진시황 15년 진나라 역사에 비하면 실로 긴 세월"이라며 전주시 중노송동 인봉리 문화촌 일대를 중심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교육과와 공연관을 겸하는 박물관을 건립해, 역사문화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견훤은 완산주 즉, 지금의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40년 후백제를 다스렸는데, 그의 능은 충남 논산에 자리잡고 있어, 일부에서 견훤왕릉을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학계와 함께 논의하며 견훤왕릉 전주 이전방안을 모색해 후백제 왕도 복원 완성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경주의 '신라 왕경 복원 사업'(1조1500억 투입)이 속도를 내고 있음을 들어 "전주도 1조3000억 예산을 투입해 후백제 문화권을 시작으로 풍납동, 교동 등 한옥마을 일대의 조선왕조 문화권을 큰 틀로 종합개발하면 국제적인 전통문화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견훤대왕 사당을 비롯 역사

/김윤상 기자

##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도입"

###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임산부들이 겪고 있을 불편을 생각하면 여러 지원이 필요하지만, 출퇴근 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운전은 직접 하거나 조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가 크다'며 '임산부에게 교통편의에 대한 지원책으로 100원 행복택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이미 타 도시에서도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돕고, 태아의 건강유지를 위해 임산부 출산까지 병원 진료 시 택시를 단돈 100원에 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100원 행복택시 도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강조했다.

## "시민 1인 1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또한 '현재 국가와 지자체에서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이며, "자주만 확실한 교통편의 지원을 통해 전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윤상 기자